

가라쿠리 인형

가라쿠리란 실이나 태엽 등의 장치로 움직이는 인형을 가리키며, 에도 시대(1603~1867) 말기에 유행한 오락 중 하나이다. 다카야마 축제에 등장하는 야타이 중에는 정교한 가라쿠리 인형으로 장식한 것들도 있다. 야타이 안에 있는 인형사 팀이 가라쿠리 인형의 움직임을 조종한다. 각 팀은 인형의 세세한 부분을 조종해 인형이 가능한 한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서로의 움직임을 맞춰야 한다.

가라쿠리는 적어도 7 세기경부터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지만,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보급된 것은 16 세기 후반에 서양의 시계 기술이 도입된 후부터이다. 가라쿠리의 메커니즘은 에도 시대의 뛰어난 기술력이 총집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
가라쿠리 인형이 발전하게 된 데에는 당시 법의 영향이 컸다. 1690년대에 도쿠가와 막부는 검약령(僕約令, ジェンヤクレイ)을 제정하여 서민들이 화려한 사치품을 가지는 것을 금지했다. 하지만 축제용 야타이는 이 법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에, 마을 주민들은 복잡하게 세공한 가라쿠리 인형 등 축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물품을 발주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 했다.

1700년대 초기부터 1800년대 후반까지는 다카야마 축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야타이에 1개 이상의 가라쿠리 인형이 있었지만, 화재 등으로 그 대부분이 사라졌다. 현재는 23 대의 야타이 중 4 대에서만 가라쿠리 인형을 볼 수 있다. 봄 축제용 '산바소(三番叟)', '샷쿄타이(石橋台)', '료진타이(龍神台)'와 가을 축제용 '호테이타이(布袋台)'에 가라쿠리 인형이 달려 있다. 이번 전시에서는 산바소와 샷쿄타이에 사용되었던 가라쿠리 인형을 선보인다.